

북스

젊은이들에게 묻는 인간의 가치

어린이 책꽂이

▲찰리, 살렛, 금빛 카나리아=영국의 그래픽 작가 찰스 키링의 자전적 그래픽...

▲김연아처럼-세계를 가슴에 품은 어린이들의 꿈=피겨여제 김연아의 자전 에세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될거야=책 읽기를 좋아하는 릴리는 모험을 찾아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멋진 주인공이 되려 결심한다...

▲그물 뚫고 헤엄 치는=2003년 지노 페로네 최우상을 수상한 이탈리아 작가 폴 발발로...

▲4월의 야구=멕시코 이민자 출신 작가 게리 소토의 생생한 체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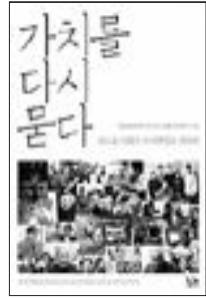
▲곰두껍의 첫 수업=동화작가 김기정씨가 지난 10여 년간 '동화담화'를 탐색하며 써온 작품 10편을 엮은 동화 모음집이다...

▲다윈-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발견=한겨레 인물탐구'의 세번째 권, 곤충채집을 좋아하던 평범한 소년 찰스가 '진화론'이라는 독자적인 이론을 구축한 과학자로 거듭나기까지 여정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아호! 춤을 추자=어린이 책 작가 모임 이야기꽃과 무용가 김지원 씨가 사람들이 함께 웃고 난장을 벌이며 서로 어우러지는 우리 춤을 소개한다...

가치를 다시 묻다

이윤영 외 지음



부산의 청소년 인문학 서점인 '인디고 서원'의 아이들은 '책 속에서, 책과 함께, 책을 통해 꿈꾸고 자라는'

아이들이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주제와 변주'에서는 감명깊게 읽은 책의 저자를 초청했고...

가치를 다시 묻다

이윤영 외 지음

그들은 청소년 인문학 잡지 '인디고ing'을 발간중이며 올해는 청소년 인문학 영문잡지 '인디고'도 만든다.

'인간'이라는 주제로 첫번째 북페어를 진행했던 이들은 '인간이란 서로 관계 맺음'으로 완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치를 다시 묻다

이윤영 외 지음

행사를 준비하며 기획팀은 세계 6대륙을 6가지 '가치'로 짝꿍했다. 정의와 희망(북아메리카), 평등과 다양성(아시아)...

노암 촘스키, 하워드 진 등 세계적인 석학들을 직접 만났고, 전 지구를 여행하며 '풍요로운 세계의 빈곤과 굶주림'에 대해 연구해온 '작은행성기금'의 프랜시스 무어 라페,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의 저자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디고 유스 북페어 프로젝트 팀이 세계적인 석학 하워드 진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각 장의 말미에는 '촘스키, 변화의 길목에서 미국 등을 말한다', '내루 평진', '하늘의 뿌리' 기획팀이 인터뷰를 준비하며, 행사를 기획하며 함께 읽고 토론했던 책 목록을 실었다.

김종서는 '대역죄인'이었을까

김종서와 조선의 눈물 이덕일 지음



조선 전기의 문신 김종서(1383~1453)는 선비들로부터 추앙받은 대현(大賢)이자, 두만강까지 국경을 넓힌 웅망한 무신이기도 했다.

역사학자 이덕일이 김종서의 일생을 통해 태종에서 단종에 이르는 조선 전기의 역사를 새다른 시각으로 풀어낸 대중역사서 '김종서와 조선의 눈물'을 펴냈다.

이이 '고려사'와 '고려사절요'가 정인지 등이 편찬한 것으로 돼 있으나 문종실록을 보면 실제 편찬자는 김종서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조선 태종이 건국 공신 등을 모두 숙청한 덕분에 세종이 안정된 정치를 펼칠 수 있었는데,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킨 이후 다시 '공신들의 천하'가 되면서 조선의 정치가 혼란해지고 백성의 삶은 고달팠다고 덧붙였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익살·정열 등 재미난 스토리 64편

체크메이트 요슈타인 가아더 지음



노르웨이 작가 요슈타인 가아더(58)는 소설로 풀어쓴 철학서 '소피의 세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다.

책은 '마녀', '오렌지 소녀', '카드의 비밀' 등 가아더의 소설을 한데 모으면 또 하나의 방대한 소설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 시절의 추억, 천지창조의 이야기, 시간여행이나 심리적 기록, 미로처럼 얽힌 마술적 이야기 등 책에 실린 64편의 스토리는 기존의 문맥에 상관없이 모두 독립적인 이야기로 읽힌다.

저자는 "나는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이 서로 영향을 끼쳐 새로운 생명을 얻고, 기존 책에서와는 다른, 나아가 한층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기를 바란다."라는 취지를 밝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상 깊은 영화의 '흔적 찾기'

길에서 어렵듯이 꿈을 꾸다 이동진 지음



영화기자를 거쳐 영화평론가로 활동중인 이동진은 '필름 속을 걷다'라는 책을 통해 영화가 탄생한 배경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었다.

신간 '길에서 어렵듯이 꿈을 꾸다' 역시 깊은 인상을 줬던 영화의 흔적을 찾아 떠난 여행의 기록이다.

영화 '원스'는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도시를 사람들에게 각인 시켰다. 어느 도시에나 거리의 음악가는 존재하지만, 영화 '원스'에서 거리의 악사였던 그 여자와 그 남자의 애절한 사랑이 가슴 떨려 했던 이들이라면 더블린의 음악가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리라.

책에는 메릴 스트립 주연의 '맘마미아'가 촬영된 그리스의 스키아토스 섬, '캐츠 어웨이'를 찍은 피지 모투리키 섬, 비틀즈의 노래로 만든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의 영국 리버풀, '투스카니의 태양' 이탈리아 투스카니 등 12곳의 여정이 실렸다.

이런 책에는 또 다른 선물이 담겼다.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느낌을 전하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말 할 수 없는 비밀'을 떠올리게 하는 더블로디의 '러브 박스' 등 영화의 감흥과 그곳의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6곡을 실은 음반이 부록으로 실렸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효성공인중개사 T.062-376-4056 H.010-3126-1515

대인동심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태양광 발전소 부지구함 위치장소 : 제한없음 용량 : 제한없음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장영희 H.P 010-4608-3700